

전북도,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경제·민생·내수·안전 4대 분야
중기·소상공인 1,150억 자금 투입
취약계층 2,750세대 등 맞춤 지원
성수품 19종 물가 집중 점검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17일 임철연 기획조정실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민생지원, 내수활력, 안전대응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연휴 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물가안정종합상황실과 물가책임관을 가동하고,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주요 명절 성수품 19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관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다소비 식품 소비기한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을 집중 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도는 지역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9월 말까지 우체국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과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진행해 지역 우수상품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정 2,75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89개소에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2,400여 명에게 떡, 전 등 명절음식을 배달한다.

이에 대해 임철연 기획조정실장은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 동안 도민과 구성



도,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돌입

임철연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7일 전북도청에서 2026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민생지원·내수활력·안전대응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진=전북자치도>

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돌보미 가정방문 돌봄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 노숙인, 결식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에

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화생보듬자금 특례보증(600억), △민생 회복 응급구조119(140억) 등 총 11개 상품, 1,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9월 한 달간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의

표준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도 운영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지사 ‘추석맞이 장보기’ 모래내시장서 민생 물가 점검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 살펴
상인 애로사항 듣고 현장 소통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홍보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성수품 물가를 살피고 상인과 도민들을 만나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17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시장 곳곳을 돌며 떡과 건어물,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가격 동향을 살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혜택을 알리며 전통시장 이용도 당부했다.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장바구니를 상인과 도민들에게 나눠주며 명절 장보기에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김병권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도민들이 늘어나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할인 혜택도 잘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7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



추석명절을 앞둔 17일 이원택 도지사가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명절 성수품 물가 점검 및 도민들을 만나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같은 기간 2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기존 일반 할인 한도 100만 원과 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주 모래내시장 등 16개 시장 주변은 상시 주차를 허용하고 익산 황등시장과 남원 공설시장 주변은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할인 혜택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도 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편의점 28곳 ‘안심존’…위급상황 대피처

17일 ‘안심존 조성 기념식’ 개최
위급상황 신고·대피 공간 제공
호신용품 담긴 안심키트 비치
이마트24 가맹점 첫 동참

전북도가 위급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인 도민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존’ 운영에 나선다.

도는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산하 전북 양성평등센터, 이마트24와 함께 전주서신마을점에서 ‘안심존 조성 기념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여성가족과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이마트24 등이 참석해 안심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안심존 조성 지원 사업’은 위급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인 도민이 가까운 편의점으로 대피해 신고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 등을 지역 안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도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생활공간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지역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사업을 수행하는 전북 양성평등센터

는 이에 앞서 7월 24일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이마트24 가맹점 28개소를 ‘안심존’으로 지정했다. 이마트24는 도민은 물론 도내에서 근무하는 자사 임직원의 안전을 함께 지킨다는 취지에 공감해 안심존 운영에 첫 번째로 동참했다.

안심존으로 지정된 매장에는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키트’를 비치한다.

매장 종사자는 불안을 느끼는 도민에게 안심키트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를 돕는다. 필요한

경우 매장을 안전한 임시 대피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일상 가까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성평등센터는 ‘안심존’ 운영을 관리하고 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전북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도내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군산 비응항서 민·관 합동 해양정화

15개 기관·단체 170여명 참여
페플라스틱·페어구 등 집중 수거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협력 강화

전북도가 '제26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

도는 17일 군산 비응항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와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수협, 어업인·민간단체 등 총 15개 기

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화활동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뒤 비응항 주변 해안가에 방치된 페플라스틱과 페어구, 생활쓰레기 등 각종 해양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인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도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항·포구와 연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예방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사진=전북도>

맞아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예방 홍보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기업·소상공 규제 발굴 현장서 찾는다

9월 한달 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공장 증설·폐수 기준 개선 건의
순창 장류업체 출하량 개선 추진

전북도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섰다.

도는 9월 한 달간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 공무원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경영·영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창구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공장 증설과 폐수배출량 기준, KS인증 및 관급계약 절차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 애로가 제기됐다.

순창의 한 장류 제조업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직접생산 출하량 제한으로 시장 수요 증가에도 공장 증설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와 순창군은 국내 소상공인 시장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최종 수출용 OEM 납품 물량을 직접생산 출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실의 한 식품 제조기업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폐수배출량 산정 시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물량까지 포함되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와 임실군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폐수량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읍무즈만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사진=전북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개정이나 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굴한 과제가 실질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혁신당 합당 전 이중당적 정리 선결돼야"

신천지 개입 의혹 경찰 수사 진전
전대 여론조사 왜곡 여부 점검
여론조사 업체 행위도 조사 착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 "당원 투표를 가정하면 이중당적 정리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여야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혁신당 등과의 이중당적이 존재하는 경우



김민석 대표

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중당적 정리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상 각 정당이 당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문제"라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현실적인 사례를 놓고 방안을 점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진

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절한 때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때 제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던 신천지 출신 중 가장 고위급에 속하는 인물의 증언을 비롯해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정보도 다 넘겼다"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요청할지 등을 정리해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대 당시의 여론조사'에 대해 "혹시 잘못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체크하다보니 드러나는 당 주변에

서 통상 당의 주요한 인사나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자료는 금고에 들어가 있고 실물 자료를 불지 말지가 남아 있는 단계"라면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동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검토하고 있다"며 전대 때의 '국민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캠퍼스 밖 대학 보유 토지 92% 임야"

사립대 토지 평가액 46% 올라
"전수조사·활용 규제 다시 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 열에 아홉이 임야이고,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10년 새 46% 올라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21개교·교과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2만 151ha였다. 여의도 면적의 69.5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임야는 1만 8,574.3ha로 92.2%를 차지했다. 축구장 2만 6,014개에 해당한다.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는 348.5ha, 1.7%에 불과했다. 임야에는 교육·연구에 쓰이는 학술림과 연습림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업·실습 등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별도로 사립대 130개교가 캠퍼스 20km 밖에 보유한 토지는 6,609.5ha였다. 경희대 1,387.2ha, 고려대 1,254.7ha, 동국대 758.2ha, 연세대 537ha, 성균관대 254.1ha 순으로, 상위 5곳이 63.4%를 차지했다. 활용 제약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현황으



한병도 의원

로 보고된 토지는 45개교 3,333.9ha였다. 국립대 8곳 2,447.5ha, 사립대·대학원대학 23곳 719.9ha, 전문대 14곳 166.5ha다. 목원대 수익용 토지 179.6ha와 성신여대 교육용 토지 106.7ha도 그린벨트에 포함됐다.

한편 2025년 사립대학법인 259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2만 3,020.9ha, 평가액은 9조 609억원이었다. 2015년보다 면적은 1.7% 줄었지만 평가액은 2조 8,453억원(45.8%) 늘었다.

법인별 평가액은 건국대 1조 1,712억원, 연세대 6,881억원, 한림대(일송학원) 6,763억원, 단국대 4,404억원, 한양대(한양학원) 2,552억원 순이었다. 지목이 '대(宅)'인 토지는 면적의 0.8%였지만 평가액의 65.1%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미활용 토지는 교육용 지위와 혜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활용계획을 내는 대학에는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특례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희승,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해법 모색

관계부처·학계 전문가 등 토론회
피해 중소기업 5개사 현장 증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희승·김남근·이강일·송재봉 의원,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을지로위원회와 주요 민생단체가 함께 하는 '2026 을지로-민생단체 불공정 피해근절 연속 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대기업을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삼재용 엔씨씨파워 대표, 김찬미 씨디에스글로벌 변리



박희승 의원

사,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 손종희 더리얼 대표, 문영갑 씨지아이 부사장이 나서, 기술검증(PoC)·납품·시범사업·M&A 실사 등 거래의 여러 단

계에서 겪는 기술탈취 피해와 장기간의 분쟁 과정을 증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손승우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김준경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정지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이 참여해 피해 입증 부담 완화와 무형자산 보호, 손해액 산정 현실화,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가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건강한 생활 습관 으로 건강관리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하루 7~8 시간
숙면



건강한 식습관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올 추석 장보기 비용, 전년 比 11.2% 상승

4인 기준 평균
28만 4,890원...
주요 성수품 큰 폭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추석을 2주 앞두고 조사한 추석 제수용품 4인 가족 상자림 비용은 평균 284,890원으로, 전년 대비 1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 주지역의 전통시장(3곳), 백화점(1곳), 대형마트(6곳), 중소형마트(14곳) 등 총 24곳에서 실시한 결과다.

추석 제수용품(23개 품목) 비용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별로 전통시장이 249,03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중소형마트가 277,156원, 대형마트가 284,406원, 백화점이 459,828원으로 나타났다.

쌀, 대추, 배추, 숙주, 대파, 송편, 밀가루, 청주, 식용유, 산자가 작년 추석에 비해 내린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햇사과, 햇배, 밤, 도라지(국산), 무, 시금치, 고사리(국산), 참조기, 동태포,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살펴보면, 과일류에서는 대추(300g)가 8,130원에서 7,706원으로 5.2% 하락했다.

채소류에서는 배추(1포기·2kg)가

7,516원에서 5,666원으로 24.6% 하락해 조사 품목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대파(1kg)는 4,194원에서 3,770원으로 10.1% 하락했으며, 숙주(400g)는 1,882원에서 1,732원으로 8.0% 하락했다.

가공식품에서는 송편(1kg)이 17,702원에서 16,249원으로 8.2% 하락했으며, 밀가루(2.5kg)는 4,783원에서 4,511원으로 5.7% 하락했다.

식용유(1.8L)는 6,542원에서 6,386원으로 2.4%, 청주(1.8L)는 11,247원에서 11,202원으로 0.4%, 산자(5개 묶음)는 5,202원에서 5,198원으로 0.1% 각각 하락했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살펴보면, 과일류에서는 햇사과(300g)가 3,911원에서 5,045원으로 29.0% 상승해 큰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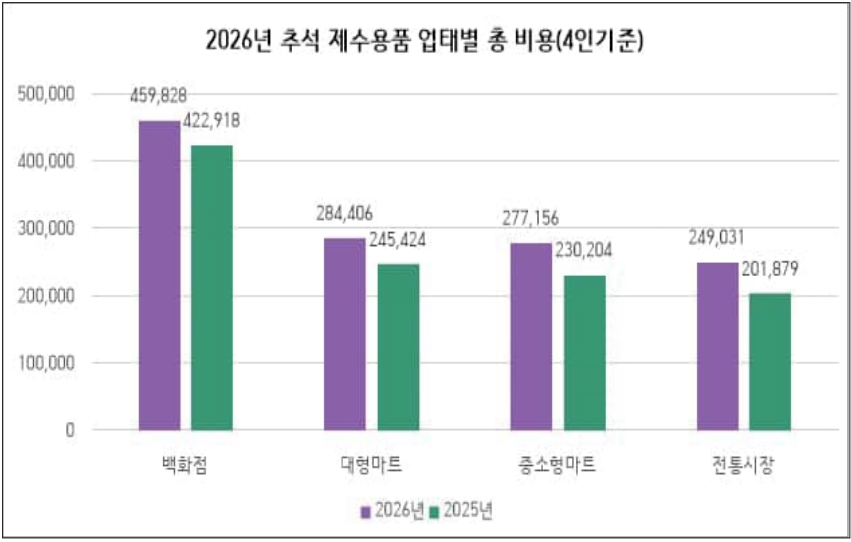
햇배(700g)는 4,649원에서 5,282원으로 13.6%, 밤(500g)은 4,476원에서 4,976원으로 11.2% 상승했다.

채소류에서는 국산 도라지(400g)가 11,217원에서 16,236원으로 44.7% 상승해 전체 조사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무(1kg)는 2,291원에서 2,686원으로 17.2%, 시금치(400g)는 10,514원에서 11,995원으로 14.1% 상승했다.

국산 고사리(400g)는 13,625원에서 13,863원으로 1.7% 상승했다.

수산물에서는 동태포(500g)는 7,179원에서 8,239원으로 14.8%, 부세(수입산·1마리)는 6,098원에서 6,241원으로 2.3%, 북어포(1마리)는 5,817원에서 5,918원으로



2026년 추석 명절 제수용품 업체별 총평균 비용 비교 <사진=전북소비자정보센터>

1.7% 상승했다.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 전염병등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인, 쇠고기 산적용(100g)은 5,197원에서 6,331원으로 21.8%, 쇠고기 국거리용(100g)은 5,719원에서 6,888원으로 20.4% 상승했다.

돼지고기 목심(100g)은 2,843원에서 2,968원으로 4.4%, 계란(30개)은 7,808원에서 8,008원으로 2.6%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두부(1모)가 2,226원에서 2,627원으로 18.0% 상승했다.

반면 다른 주요 가공식품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가격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두부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올해 추석 제수용품 조사 결과, 4인 기준

평균 장보기 비용이 28만 4,890원으로 전년보다 11.2% 상승해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통시장은 24만 9,031원으로 대형마트보다 약 2만 8천 원 저렴한 만큼, 판매처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우 등 주요 성수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과 대형·중소형마트 등 유통업체별 할인 품목과 행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세무서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중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복지 연계로
‘감동 행정’ 실현

군산세무서 국제외수입 체납관리단이 2026년 7월 7일 출범 이후 9월 15일 기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안내 2,000여 건, 방문상담 안내 50건, 복지연계 38건을 추진하며 과태료 납부 기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체납관리단은 수송동의 한 원

룸에 거주하며 과태료 53건(총 333만 9,000원)을 체납 중인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고액 체납 이면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했다.

B씨는 과거 사업 사기와 대포차 명의의 도움 사기를 당해 막대한 과태료를 짊어진 피해자였으며, 이로 인한 충격으로 뇌경색(뇌 손상,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행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체납자 본인은 혼자서 행동이 불

가능해 간병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가구원 모두 소득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 징수 대상이 아닌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임을 직시하고,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세한 현황을 작성해 ‘복지 연계’를 접수했으며,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움을 받은 B씨의 아내는 “진절하고 상세하게 복지를 연계해 주어 노인인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삶

의 큰 의지를 가지게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3회에 걸친 감사 전화와 업무용 태블릿 PC를 통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체납관리단 동행공무원은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따뜻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신흥 부촌의 중심에 ‘삼천 하늘채 라비엘’ 그랜드 오픈

심화된 주택 공급난에
6천세대 재건축 프리미엄

최근 비수도권에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전주 분양시장은 극심한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으로 독보적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청약 불량이 대거 쏟아지며 청약 광풍이 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삼천 하늘채 라비엘’을 오늘 그랜드 오픈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노후주택 70%... 원도심 새 아파트 갈증 뚜렷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내 지어진 지 15년이 넘는 노후주택은 13만1,975가구로,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 교체 수요를 고려하면 매년 3,3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하지만 정작 완산구의 신규 공급 실적은 2023년 663가구, 2024년 64가구, 2025년 277가구에 그치며 3년 연속 필요 물량에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계 관계자는 “전주 삼천동 일대는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드물어, 새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층이 두터

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완산구 내 신규 분양이 뜸했던 만큼, 이번 ‘삼천 하늘채 라비엘’에 갈아타기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 삼천주공3 재건축으로 탈바꿈... 602세대 중 116세대 일반분양

‘삼천 하늘채 라비엘’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총 60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며, 전용면적 59㎡, 74㎡A/B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천동 일대에는 앞으로 10여개 단지, 약 6,000세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삼천 하늘채 라비엘’을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일대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원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인 만큼, 신축 단지가 들어설수록 지역 전체의 주거 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산고·삼천초·효문중 도보 통학... ‘트리플 학세권’

‘삼천 하늘채 라비엘’이 학부모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학군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명문고로 꼽히는 상산고를 비롯해 삼천초, 효문중이 단지 인근에 모여 있어, 초·중·고등



학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트리플 학세권’을 형성한다. 자녀의 통학 안전과 이사 없는 학창 시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 는 쉽게 만나기 힘든 조건이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학 거리 문제로 이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 작용한다. 학군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이 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삼천 하늘채 라비엘’은 한 번의 입주로 초·중·고 통학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앞에 자리한 삼천도서관까지 도보권에 있어, 방과 후 학습 공간도 해결할 수 있다. 우수한 학군과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도보 생활권 안에 모여 있다는 점은, 자녀 교육을 중요

하게 여기는 3040세대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로 꼽힌다.

■ 학군·생활·공원·교통까지 도보권... 완성된 원도심 인프라

‘삼천 하늘채 라비엘’의 강점은 신축 이면서도 원도심의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처럼 상권과 기반시설이 갖춰지길 기다릴 필요 없이, 단지 인근에서 전복도정·완산구청과 대형마트·대형병원 등 물론 서부시장·농수산물시장, 우체국·전주병원, 삼천동 주민센터까지 도보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과 삼천 생태하천까지 근거리에서 있어 도심 속 녹지와 수변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을 갖췄다.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는 17일 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농심천심 실천을 위한 ‘찬찬찬’배추김치 반찬봉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반찬봉사

150가구에 나눔실천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외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는 17일 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홀로어르신과 다문화가정 150가구에 농심천심 실천을 위한 ‘찬찬찬’배추김치 반찬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단순한 반찬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 속 돌봄 활동 실시로 정신건강 리플렛과 안내문을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찬찬찬’반찬봉사는 농가주부모임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나누며 이웃의 삶을 살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김미자 회장은 “명절을 맞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며 안부를 전하는 복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소회전달네집, 엄마사랑요양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 전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소회전달네집, 엄마사랑요양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관계자와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정태 회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명절마다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최준호 기자

교통 역시 용리로·백제대로·장승배기로 등 세 개의 간선도로가 단지 인근에서 교차해, 전주 주요 도심과 핵심 생활권으로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

■ 세대당 주차 1.43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브랜드 프리미엄

주차공간은 총 864대 규모로 계획돼 세대당 1.43대 수준을 확보했다.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넉넉한 주차 공간은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공을 맡은 코오롱글로벌은 그동안 유려미한 주거명작으로 불리는 ‘틴트그로브’, 호텔형 주거공간을 표방한 ‘트리폴리스’, 국제건축대상을 수상한 ‘월엔온리타워’,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등 다수의 랜드마크 단지를 성공적으로 선보여왔다. 이번 ‘삼천 하늘채 라비엘’에도 이 같은 시공 능력과 ‘하늘채’ 브랜드의 주거 철학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모집공고로 청약 일정 시작 ‘삼천 하늘채 라비엘’의 청약 일정은 오늘 그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특별공급, 29일 1순위 청약, 30일 2

순위 청약 순으로 이어진다.

그랜드 오픈 기간 견본주택에 방문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특별 사은품이 제공되며, 30일까지 방문 인증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LG전자 65인치 TV, 스탠바이미2, 로보락 콤팩트 울인원 세탁건조기, 에어팟, 코드제로 청소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분양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는 전주에, 지역마다 랜드마크를 지어온 코오롱글로벌이 ‘삼천 하늘채 라비엘’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분양문의가 날아갈 높아가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도 “전주의 새로운 부촌으로 기대감이 높은 삼천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많은 청약통장이 쏟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견본주택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85, 샘물빌딩 2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자세한 분양 일정 및 청약 관련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AI 기반 평가 체제 구축

2028년 국가 평가 엔진 도입 대비 서울·전남광주와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8학년도 중·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발맞춰 서울, 전남광주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7일 전남 여수에서



천호성 교육감

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국가 차원의 '평가 AI 엔진' 도입에 앞서 검증된 평가 체제를 선

열린 대한민국 교육감총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AI 기반 진단·평가시스템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문항 출제부터 답안 채점, 피드백 제공, 기록 조안 작성까지 평가 전 과정을 보조한다.

또한 학생에게는 맞춤형 피드백 리포트 제공해 개별 성장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시스템 구축

과 시범 운영을 거쳐 시군 거점학교 및 도내 전 학교로 도입을 순차 확대하고, 교원 실습 연수와 헬프데스크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핵심이지만 교사의 부담이 큰 영역”이라며 “세 교육청의 역량을 모아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 지원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시스템 구축

/최성민 기자

전북대 간호대·전북도, 통합돌봄 전문인력 육성

재택의료·방문간호 실행력 강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이끌 보건·간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전북대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간호인력 통합처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보건진료소 등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이다.

이번 과정은 방문간호와 응급처치, 복합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북대병원 실무 간호사와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해 임상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했다.

김혜영 간호대학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형 통합돌봄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이끌 보건·간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사진=전북대학교>

익산 이색교도소, 머물며 즐기는 관광콘텐츠로

지역 자원 결합한 체류형 관광 ‘관심’

익산시가 지역의 이색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직접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이색교도소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2026 익산 스트레스 EXIT 캠프'를 총 5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익산 스트레스 EXIT 캠프’는 이색교도소를 배경으로 ‘일상에 갇힌 현대인의 스트레스 탈출’을 주제로 기획됐다.

미션과 레포츠, 캠핑, 공연, 미식 등을 하나의 여행으로 구성해 관광객이 이색교도소에 직접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사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가족과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신청이 이어졌고, 총 5개 회차의 사전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캠프는 △1회차 10월 3~4일 △2회차 4~5일 △3회차 9~10일 △4회차 10~11일 △5회차 17~18일 등 총 5회 진행된 다.

첫날에는 ‘스트레스 감옥의 힌트’, ‘엑션! 스트레스 대탈출’ 등 미션과 레포츠를 진행한다.

저녁에는 캠핑과 공연, 야간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요가와 익산의 맛을 결합한 ‘미식 펀러닝’을 진행하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또 체류 관광을 지역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로컬 소비 리워드’도 운영한다.

행사 전날 또는 당일 익산지역 음식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참가자

1인당 1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익산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에서 벗어나 독특한 공간에 직접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의 방문이 체류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SNS를 통해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다”며 “이색교도소라는 익산만의 독특한 공간을 직접 머물고 즐기는 관광콘텐츠로 재해석한 점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사진=익산시>

“앞으로도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익산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고, 방문을 체류와 소비로 전환하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아이치·나고야 AG 전북 선수단 56명 출전

군산시청 조정팀 등 메달 사냥 나선다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안개임에 전북지역 선수단 56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대한민국 선수단 1050여 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 중인 선수와 임원은 25개 종목 56명이다.

사격에서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원 출신 양지인과 임실군청 추가은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정상급인 서승재도 금빛 스매시를 쟁조준한다.

수영에서는 도체육회 실업팀 원소포단 소속 한다경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르며, 이송은도 점영 종목에 나선다.

육상 해머던지기 익산시청 김태희를 비롯해 철인3종 김혜랑, 세팍타크로 박선주 등도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품고 최고의 기량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의 김재연, 최미서, 김승연 선수가 지난 4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이번 아시안게임 조정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김재연, 최미서 선수는 각각 한 개의 노를 잡고 호흡을 맞추는 ‘무타페어’ 종목에 출전해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김승연 선수는 두 개의 노를 쥐고 경기하는 ‘더블스컬’ 종목에 출전해 아시아 최고의 강자들과 물살을 가르며 경쟁에 나선다.

그동안 군산시청 조정팀은 체계적인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군산시의 위상을 높여왔다.

국가대표로 발탁된 세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 온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김재준 시장은 “우리 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 무대에 나서는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26만 군산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지송길 기자

원광대·전북권 5개 대학, 실험실창업 육성 협력

공공기술 사업화 시장검증 공동 추진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전북권 5개 대학이 연구실 보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창업(Lab Start-up)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원광대 실험실창업혁신단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6 유니브 스타트업 페스타(Univ. Start-up Festa)’ 행사장에서 국립군산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와 ‘전북권 SITE 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실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5개 대학은 앞으로 교내 우수 창업팀을 공동 발굴하고 고객검증, 시장조사,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최성민 기자



<사진=원광대학교>

아울러 창업팀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후속 투자 유치와 산학협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우순 실험실창업혁신단장은 “권역 대학들이 연대해 대학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연구 성과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Good Bye “미세먼지”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가용
이용을 자제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중
급출발, 급제
동, 공회전
삼가 하기



실내 공기를
위해 정화
식물
키우기



요리시
직화구이
삼가 하기



나눔기를
이용하고, 나홀로
운행자제

익산소방서, 평생학습축제서 ‘소방안전 체험부스’ 운영

익산소방서가 오는 19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익산교육발전 특구와 함께하는 익산평생학습 축제’장에서 시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체험부스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상황 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5명과 서동119CPR교육단 소속 의용소방대원 8명 등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배치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부스에서는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는 ‘소·소·완 체합’과 함께 소방장비 착용 체험, 소방 기념촬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서동119CPR교육단이 직접 지원하는 심폐소생술(CPR)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응급처치 유의사항을 직접 실습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체험형 안전 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풍류로 여는 한가위” 24일 귀성객 맞이 특별공연

정읍시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4일 오후 4시 연지아트홀에서 귀성객 맞이 특별공연 ‘문화산책·풍류 한 상’을 선보인다. 정읍시립국악단과 객원 출연진이 춤과 창극, 가야금, 사물놀이로 풍성한 명절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는 정읍시립국악단과 객원 출연진 등 29명이 무대에 올라 60분 동안 전통국악의 다채로운 맛을 선보인다. 한가위 밤상을 차리듯 춤과 노래, 연주, 창극을 고루 담아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무대는 흥겨운 ‘옛가위 춤’으로 문을 연다. 이어 ‘팔월가’와 ‘태평무’, 단막창극 ‘화초장 대목’, 신명 나는 ‘사물놀이’ 등이 펼쳐지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정읍시립국악원에서 국악을 배운 노윤지 객원 출연자는 25현 가야금으로 ‘한오백년’을 연주한다. 박정후 객원 출연자의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도 더해져 우리 가락의 깊은 멋과 풍성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연휴 첫날 가족들과 함께 연지아트홀을 찾아 신명 나는 국악공연을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군산시간여행축제’ 내달 2일 개막

군산시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를 일원에서 대표 가을 축제인 ‘제14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개최한다.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올해 축제는 해군 군악의장대의 절도 있는 공연과 글로벌 모던 플래시몹 등 화려한 사전 공연으로 개막식의 포문을 연다. 이어 △거리형 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스트릿 마당’ △근대 콘텐츠를 반영한 종합 퍼포먼스 경연대회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가수 림, 하이키, 신예영, 앳하트, 아다, 정서주 등 유명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시간여행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우리 시가 가진 소중한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그 리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감성 축제”라며, “가을빛이 물드는 아름다운 군산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막는다”

24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33개소 참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읍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33개소가 참여하고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시는 4일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진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현

황을 안내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비상근무에는 종합병원 2개소와 병원 2개소, 일반의원 5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2개소, 보건기관 11개소가 참여한다. 해당 기관들은 일정에 따라 외래 진료와 의약품 구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정읍아산병원은 연휴 내내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보건기관과 일부 병·의원도 날짜별로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휴일지킴이약국에서는 약 복용 안내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공공심야약국인 샘골약국은 연휴 기간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시는 연휴 동안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는 정읍시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물가·민생안정·교통 등 7개 분야 종합대책

익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물가·민생 안정, 교통·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성수품 가격을 살피고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어움’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0명에

게 다이어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오는 20일까지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정 자금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명절 전까지 76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민생 안정과 더불어 명절 연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안전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일반민원처리반 등 10개 반이 운영된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등 필수 인원 50여 명이 근무하며, 재난·교통·민생·보건 등 각 분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 불편 해소를 안전 확보에 힘쓴다.

아울러 보건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돌봄에도 힘쓴다.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와 결식 우려 아동에게 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추석 당일 공설운동장에서 익산하늘공원(팔봉공설묘지)까지 성묘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105개소 7,404면을 무료 개방하고,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 혼잡 구간을 관리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서해권 해상풍력 핵심 거점 도약

道·유니슨·군산대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 협약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국내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과 손잡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시는 17일 ‘2026 새만금 청정에너지 박람회’가 열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고정식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 김병주 유니슨㈜ 대표이사, 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유니슨㈜, 국립군산대학교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의 국가산업단지와 항만, 제조산업 기반에 기업 투자와 연구·인력양성 기능을 더해 서해권 해상풍력 산업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유니슨의 군산 투자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고, 유니슨은 해상풍력 터빈 공장과 연구 및 O&M(유지보수) 시설 등 군산 투자를 추진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협약에 참여한 유니슨은 지난 7월 영광 한빛해상풍력단지에 13.6MW급 터빈 25기를 수주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창해상풍력단지와 99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향후 군산 투자와 지역 풍력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립군산대학교 역시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EIRC)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현재까지 186명의 실무 기술자를 배출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다.

시는 해상풍력 터빈을 비롯한 핵심 부품 제작부터 기술연구, 인력양성, 유지보수(O&M), 군산항 지원항만까지 연계해 지역 내에 해상풍력 전 주기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의 바람을 지역 산업과 기업의 성장,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시작점”이라며 “군산이 가진 산업·항만·대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서해권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유니슨 등 참여기관과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투자 규모와 입지, 추진일정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상풍력 기자재·O&M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제3산단, 농·산업용 드론 생산기지로

(주)락로보틱스와 투자협약… 약 30억 투자

익산시가 드론·무인항공기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넓혀간다.

익산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락로보틱스와 제3일반산업단지 내 드론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락로보틱스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 6,610.7㎡ 부지에 약 30억 원을 투자한다.

농업·산업을 드론을 비롯해 비행 제어장치(FC), 고정밀 위성항법장치(RTK

GNSS) 등 핵심 항공전자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12명을 상시 고용할 계획이다.

(주)락로보틱스는 2024년 12월 설립된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기업이다.

현재 합열을 제4산업단지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과 소규모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산과 사업 확대를 위해 제3산단에 자체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한다.

신규 공장에는 농업·산업용 드론 조립·양산과 핵심 항공전자부품의 생산·검사 기능을 집적한다.

이를 통해 핵심부품의 설계·생산·검증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연계하는 생

산체계를 갖춘 계획이다.

익산시는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의 생산기반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용범 익산시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투자가 지역 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의 생산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근대유산, 세계유산 등재 시동

본격적인 가치 규명 착수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지역에서 보물 창고로 온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대한민국 근대사의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첫 공식적인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군산은 1899년(대한제국 광무3년) 개항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 금융·상업시설, 창고와 산업시설, 주거공간 등이 형성되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했다. 오늘날 군산 내항과 원도심에는 이러한 도시형성과 변화의 과정이 다양한 근대문화유산과 도시공간 속에 집약적으로 남아 있다.



<사진=군산시>

특히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은 개별 건축물의 가치를 넘어 ‘항구-철도-창고-금융·상업-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근대도시의 구조와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군산시 원도심에는 식민지 수탈, 노동과 삶, 저항과 극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출발점으로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및 자료 체계화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정립 △유산의 범위와 핵심 구성요소 검토 △국내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바이오산업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기관·기업 연결

정읍시가 지역 연구기관의 역량을 산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중장기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7일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첨단 보건 의료 생명 공학(레드바이오)을 중심으로 한 육성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생명공학(바이오)산업의 정책·산업 동향과 정읍시의 연구 기반, 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

성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정읍이 보유한 생명공학 자원과 연구·지원기관을 토대로 의학·의료 분야의 첨단 보건 의료 생명공학으로 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기업 유치와 성장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생명공학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학수 시장은 “생명공학 산업은 연구기관과 기업, 인재, 산업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읍이 보유한 연구기관과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첨단 보건의료 생명공학 분야를 육성하고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복지·민원 분야별 현장 상담

‘행복동행 프로젝트’ 진행

익산시가 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행복동행’을 시작한다.

익산시는 17일 오후 3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익산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첫 찾아가는 복지·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행복동행 프로젝트’는 민선9기 익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복지·민원 상담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복지·노인·장애인·아동·여성청소년·도서관 분야 상담과 종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복합·고충사항은 전담 인력이 관련 부서와 연계하고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민원 해결을 돕는다.

시는 첫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앞으로 복지관과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등 시민 생활 현장을 찾아 ‘행복동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24~27일까지

군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불발·주정차 지도 단속, 도로 파손 및 로드킬 처리, 긴급 상·하수도 민원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번, 휴대전화 063-120번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하며,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긴급 상·하수도 민원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남계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

군·전문기관 협력 학술가치 규명 2027 세계청년대회 순례명소 육성

‘완주 남계리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민선 9기 완주군이 역점 추진해 온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 정책이 값진 결실을 거뒀다.

완주 남계리 유적은 국가유산청 국가사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사적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 유적은 조선 후기 고유의 전통사상과 서구에서 유입된 천주교 신앙이 마주하며 빚어진 사상적 갈등, 그리고 격동기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오롯이 간직한 핵심 역사 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 유적 주변 정비와 유해 보존 등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다져왔으며, 전

문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와의 학술조사·연구를 비롯해 천주교 전주교구와의 민관 협업을 활발히 이어가며 핵심 사료를 집대성하고 지역사회 공유 기반을 넓혔다.

이번 국가사적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정비 사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인근 역사 자원과 묶어 남계리 유적을 전시·교육·탐사가 어우러진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국내외 순례객이 발걸음하는 순례 명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 국가 사적 지정은 지역 역사자원의



<사진=완주군>

가치를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국가유산으로 발전시킨 의미 있는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라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에는 국가 사적 위봉산성과 임진왜란 웅치전적이 있으며, 지속적인 국가 사적 추가 지정을 추진해 지역 역사자원 발굴과 국가유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임금님 진상행렬’ 서울 한복판서 재현

2026 순창장류축제 서울 홍보 덕수궁·광화문서 전통행렬 선배

전통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출발한 ‘임금님 진상행렬’이 서울 한복판을 수놓는다.

순창군은 오는 10월 2일 덕수궁 차 없는 거리와 광화문 월대 주변에서 ‘2026 순창장류축제 임금님 진상행렬 서울홍보’를 펼치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창 장류의 역사와 전통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단순히 홍보물을 나눠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임금님께 장류를 진상하러 가는 길’을 서울 도심에서 직접 재현한다. 전통복식과 취타, 농악, 순창의 장류를 상징하는 진상품 운반 포포먼스를 한데 엮어 순창의 장류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덕수궁 대한문 앞이다. 이날 낮 12시에 대한문을 출발한 진상행렬은 덕수궁 차 없는 거리를 따라 원형분수대 방향으로 이동한 뒤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약 300m 구간에서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진=순창군>

덕수궁에서의 행렬을 마친 뒤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후에는 광화문 동측 보행로를 시작으로 월대 주변을 지나 서측 보행로까지 행렬이 이어지며, 광화문과 월대를 배경으로 전통 진상행렬의 역사적인 모습을 재현한다.

순창군이 서울까지 대규모 진상행렬을 이끌고 나서는 것은 ‘순창 장류’가 지닌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다 생생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올해 순창장류축제가 2026년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만큼 국내 관광객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순창 장류’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로 각인시키겠다는 구상

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전통행렬을 통해 순창장류축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순창의 장류문화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food 관광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을 이동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관광객이 몰릴 경우 행렬 폭과 이동속도를 조절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가동

교통·쓰레기 등 생활불편 대응 저소득층 260세대 생계비 지원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교통·쓰레기·상하수도·보건의료 등 7개 대책반을 운영하고, 가족전염병 방역 비상근무도 별도로 실시한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남원사랑상품관에 선

한인 10%와 캐시백 5% 등 총 15%의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21개 성수품의 가격 동향과 가격·원산지 표시, 불공정 유통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안전 분야에서는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교통·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구간 교통관리와 불법 주정차 계도

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6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생활쓰레기 수거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118개소의 시설·위생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260세대에 세대당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민간 단체·기업체 등의 이웃돕기 물품과 지원기탁을 연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빈틈없는 분야별 대응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동육아나눔터 삼봉도서관내 확장 이전

완주군이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기존 삼봉 공동육아나눔터를 삼봉도서관 안으로 확장 이전을 마쳤으며, 하반기 상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삼봉 공동육아나눔터는 한층 넓고 쾌적한 도서관 공간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즐기고 부모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군은 이번 이전을 발판 삼아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가족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나눔터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체험을 비롯해 미술, 음악, 신체 활동, 오후 놀이 등을 제공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넓혀 간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양육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 소모임 활동도 적극 뒷받침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무기질 비료값 가격안정 지원

추경 3억6800만원 확보

11월 30일까지 할인 구입

남원시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작년 대비 인상가격의 50%를 국비·지방비, 30%를 농협 중앙회에서 지원해 실제, 농가는 지원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무기질비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68백만원을 확보하고 연말에 농협에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게 된다.

농가별 보조금은 최근 2년간 비종별 평균 보조 물량과 비종별 보조금 단가 등을 고려해 농가별 배정금액이 산정되며, 미국·이란 전

정 여파로 30%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해 6월초 기준 농가별 보조금이 남은 농가에 한해 급등한 가격을 추가 반영해 지원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구입이 필요한 농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1월 3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필요한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면 지원 보조금을 제하고 구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농가 안정적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를 또한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해 농업 경영비 절감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 투입

2025년산 8품목 629농가 대상

전북도 지원사업으로 양파 제외

남원시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8개 품목에 총 1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지난 15일 ‘2026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산 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및 지원대상·비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자료 외에도 자료 부존재 품목에 대해 대체 품목 자료를 적극 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원 대상

품목은 방울토마토, 딸기, 샤인머스켓, 파프리카, 상추, 고구마, 오이, 토마토 등 총 8개 품목이다.

지원 비율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0%로 결정됐으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629농가에 약 15억 3,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파의 경우,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차액의 90%를 별도 지원으로 이번 시 기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남원시는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 기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금 지원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소년 생명존중’ 숲길 걷기 체험 진행

자살예방의 날 기념 힐링 행사

강천산 맨발산책로 5.5km 코스

순창군은 지난 16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숲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명사랑 숲길’은 순창군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숲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성했다. 강천산 병풍폭포에서 구름다리를 지나 구장근폭포에 이르는 맨발산책로 5.5km 구간으로 코스 곳곳에 생명존중 희망문구를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문 숲해설가가 동행하여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강천산 맨발산책로를 걸



으며 자연을 직접 느끼고, 학업과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다”며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보건소, 추석 연휴 감염병 대응 총력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지 간 교류와 여행 등으로 음식 공동 섭취와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호흡기감염병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11일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추석 연휴 기간 호흡기감염병 확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등의 장관감염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았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물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

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은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 감염병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 간 만남과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서울시 고향사랑기부

와일드푸드축제 홍보

완주군이 서울에서 고향사랑기부 혜택을 알리고 가을 대표 축제 알리기에 나선다.

군은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고향사랑페스타’에 참가해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4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함께 알린다.

행사 기간 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특색 있는 담례품, 주요 기금 사업을 소개해 기부 동참을 이끈다.

특히 오는 10월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불타오르는 거친 야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먹거리를 집중 홍보해 수도권 방문객들의 완주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10월 축제 방문으로 이어져 완주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유아 건강댄스교실 운영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관내 6~7세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신나는 유아 건강댄스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나는 유아 건강댄스교실’은 강사진을 초빙해 9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6세 반, 7세 반으로 나눠 각각 1시간씩 운영되며, 성장기 유아들이 즐거운 음악과 율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유아의 발달단계와 눈높이에 맞춰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음악에 맞춘 율동, 신나는 댄스, 신체활동 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단순히 춤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신체활동을 접목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다양한 동작을 따라 하면서 기초체력 향상과 신체 조절 능력, 협동심 및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온기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유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이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고산농협, 벌초 대행으로 출향인 시간·거리 부담 덜어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대행서비스를 추진하며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인과 고향마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고산농협은 17일까지 총 333기의 묘소에 대한 벌초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민회 회원 28명이 참여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조상의 묘소를 정성껏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출향인의 타 지역거주 등으로 직접 고향을 찾아 벌초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고산농협은 벌초 대행서비스를 통해 출향인들의 시간적·거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묘소관리에 그치지 않고 출향인과 고향마을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향인들은 직접 고향을 찾지 못하더라도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며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고, 지역 농민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 간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손병철 조합장은 “벌초 대행서비스가 출향인과 고향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한돈협회 남원시지부 돈육 선물세트 196박스 기탁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대한한돈협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이강영)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830만 원 상당의 한돈 돈육 선물세트 196박스를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남원시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돼지고기 기부를 시작으로 명절 때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작년 설날에는 돈육 선물세트 70박스를, 작년 추석 명절에는 갈비세트 70박스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는 기부 물량을 대폭 늘린 196박스의 선물을 전달하며 오랜 기간 지역 사회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돈육 세트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강영 대한한돈협회 남원시지부장은 “명절만큼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훈훈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아이보리식품 영농조합법인 고창 성내면에 500만원 기탁

아이보리식품 영농조합법인(대표 장용균)이 올해도 고창군 성내면 이웃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아이보리식품 영농조합법인의 기탁은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해마다 지역의 이웃을 먼저 살피며 기업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용균 대표는 “해마다 해오던 일인 만큼 올해도 당연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우리 주변에 조금 더 살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매년 성내면과 이웃들을 기억해주시는 장용균 대표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박연호 유족회 전북지부장, 추석맞이 라면 기부

어려운 회원 위한 나눔 실천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박연호 지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회원과 고령 회원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라면 100박스를 마련해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추석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회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준호 기자

17일 오전 11시 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연호 지부장을 비롯해 전 직원과 각 시·군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마련된 라면은 전라북도 각 시·군 지회장들에게 배분됐으며, 각 지회에서는 전달받은 라면을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들에게 추석 명절 전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연호 지부장은 “회원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박연호 지부장이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 <사진=최준호 기자>

완주소방서, 전국119소방동요대회 ‘우수상’

완주 최초 전국무대 빛났다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전국119소방동요대회’에 무지개재능유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무지개재능유치원은 지난 6월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유치부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특히 완주지역 유치부 참가팀이 대회 1위에 올라 전북 대표로 진출

국119소방동요대회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전국 무대는 완주지역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뜻깊은 기록이 됐다.

전국대회를 위해 어린이들은 노래와 율동뿐만 아니라 대형과 동선, 표정과 호흡까지 세심하게 맞추며 꾸준히 연습해왔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습을 이끌어온 지도교사들의 열정과 노력도 빛났다. 교사들은 연습과정부터 무대 적응훈련까지 함께 하며 어린이들이 전국 무대에서 자신 있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을 보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 용담면, 장수 어르신 ‘무병장수’ 기원

진안군 용담면(면장 노기환, 노인회장 김광배)은 지난 16일, 추석을 맞아 관내 최고령 장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담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명절을 맞아 회동2마을 95세 어르신, 노은마을 92세 어르신 두 분의 댁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준비한 소정의 명절 선물으로 전달하고, 평안한 일

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를 건넸다.

노기환 용담면장은 “어르신들께 오랜 세월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오늘의 용담면이 있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경로효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슈퍼와, 김제시 장애인체육회에 500만원 기탁

김제시는 17일 (유)슈퍼와(대표 강신태)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김제시 장애인체육회에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신태 슈퍼와 대표를 비롯해 홍창화 이사, 함경수 이사, 김용 고문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슈퍼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신라면

1,000박스를 기탁했으며, 2026년 6월에는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1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포인트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강 대표는 전북 아너소사이터 74호 회원으로서 고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정순기 효성건설 대표 부안 상서면에 백미 50포 기탁

부안군 상서면은 부안 관내 건설업체인 효성건설(대표 정순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6일 상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10kg)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효성건설은 올해 초 설 명절에도 쌀 50포를 전달한 데 이어,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정순기 대표는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선 상서면장은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소중한 물품을 기탁해 주시는 효성건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쌀은 추석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 연지동 주민자치회 전·송편 마련해 이웃에 전달

정읍시 연지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6일 ‘추석 명절 소외계층 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홀몸 어르신 등 100가구에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2026년 자치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행사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전을 직접 부치고 송편과 과일 등을 준비했다. 위원들은 각 가정을 찾아 꾸러미를 전하며 안부도 살폈다.

박월순 회장은 “명절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안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함께 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동장은 “바쁜 가운데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는 박월순 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행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건조한 가을,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가을철 산불 예방

1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2



취사 금지구역에서 취사 금지

3



산에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4



산불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一事一言〉



하얗게 질린 채 죽어가는 숲, 국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사계절 내내 푸른 기개를 잃지 않던 우리 민족의 상징 소나무가 하얗게 질린 채 죽어가고 있다. 또한 지리산과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이미 집단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금강송과 전나무조차 기괴한 백골의 형상으로 산천을 뒤덮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생태계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기후위기가 물고 온 명백한 재앙의 경고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정서적 지주이자 산천의 주인이었다. 모진 눈보라를 견디며 사시사철 푸른 기개를 유지하던 그 기품은 이제 옛날이 되었다.

현재 전국 고산지대에서 벌어지는 침엽수 집단 고사 현상은 자연의 일시적 부침이 아니다. 환경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붕괴다. 600년을 버텨온 노거수(老巨樹)들이 불과 몇 년 사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가 아닌 ‘환경의 몰락’으로 규정해야 한다.

붕괴의 원인은 자명하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나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겨울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졌고, 눈은 사라졌으며, 공기는 유례없이 건조해졌다.

사계절 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록수에게 적설량 감소와 증발산량 증가는 치명적인 탈수를 불러온다. 겨울부터 시작된 수분 스트레스는 초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약해진 뿌리는 태풍 한 번에 흠디미와 함께 무너져 내린다. 결국, 지금 산등성이를 수놓은 백골의 숲은 기

후변화라는 거대한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만들어낸 비극의 현장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생물은 환경이 변하면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하며 적응한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의 고산지대에 고립된 침엽수들에게 북쪽이나 고지대는 이미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오를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점진적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멸종’이다. 자연의 자생적 회복력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 차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숲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단순히 ‘나무 몇 그루의 소실’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직무유기다. 소나무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태계의 심장이다. 나무가 무너지면 그 열매를 먹던 동물, 그곳에 동지를 틀던 새, 그늘에 의존하던 식물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한다. 생태계의 먹이망이 끊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욱이 고사목의 증가는 대형 산불의 불씨가 되고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하며, 탐방객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일하고 나태하다. 구상나무는 이미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정작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부처 간의 관할 다툼과 행정적 엇박자 속에 멸종위기종 지정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무책임이 숲을 죽이고 있다. 정부가 외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구호가 고사해가는 소나무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다. 숲의 관리를 단순한 산림 행정의 하위 범주에 두지 말고, 국가 전략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으로 격상해야 한다.

고사 진행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긴급 복원, 종 보존을 위한 인위적 개입,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장기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기후의 시계는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선택의 기회는 사라진다.

숲은 말이 없다. 대신 침묵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산이 하얗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 기반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생태계의 붕괴는 곧 인간 삶의 붕괴로 이어진다. 자연의 비명에 귀를 닫은 대가는 머지않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숲이 죽어가고 있다. 진짜 위기는 나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국가의 오만과 무관심이다.

ㅣ 독자투고 ㅣ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그 뒤편에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적인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손길을 거쳐 정교한 성착취물이나 범죄 도구로 탈바꿈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합성이 일종의 ‘장난’이나 ‘재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얼굴을 훔친 범죄, 딥페이크

입니다.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순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기획수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제고와 주변의 관심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딥페이크가 유희가 아닌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장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재경철서 신동지구대
경사 박재원

피지컬AI 선점한 전북, 산업 대전환으로 이어가야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의 중요한 거점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다. 2030년까지 총 7,36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전북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적용과 사업화를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완주 이서면 일원에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농생명 등 전북의 기존 산업과 AI·로봇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새만금 산업 인프라와 현대자동차 투자,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7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와 대규모 시설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책사업이 끝난 뒤 시설과 장비만 남아서는 안 된다. 유망 AI·로봇 기업을 얼마나 전북으로 유치하고 지역기업을 기술개발과 실증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성과를 전주·완주에만 가둬서도 안 된다. 새만금과 군산·익산·김제의 제조업은 물론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전북은 모처럼 미래산업의 출발선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피지컬AI 선점이 기업과 투자, 일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전북 산업지도 대전환’은 현실이 될 것이다.

▲오늘의시

친구 / 문정희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누가 몰랐으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끝까지 함께 갈 순 없다는 것을...
진실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었지
언젠가 이 손이 낙엽이 되고
산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온다는 사실이지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온몸으로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하루
잠시 잊었던 친구처럼
홀연 다가와
투옥 어깨를 친다는 사실이지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데’, ‘떨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특별자치도 119-444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지리산 자연과 정성 담은 남원 추석선물 ‘인기’

“마음은 넉넉하게, 소비는 뜻깊게”

먹거리·생활용품 등 품질 좋은 지역 생산품 한자리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발길이 분주한 가운데, 남원의 자연과 생산자의 진심을 담은 특별한 명절 선물이 소비자를 찾는다.

남원시 사회연대경제협회의회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 제품들을 모아 다채로운 구성의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편집자 주〉

한가위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남원의 맛

사회적기업 (유)하이오백은 남원의 깊은 풍미를 담은 김부각과 팥쌀죽을 선보인다. 전통 방식대로 찹쌀죽을 정성스레 발라 맑은 현미유에 바삭하게 튀겨낸 김부각은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여기에 감칠맛을 더하는 매콤한 팥초장을 곁들여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삭한 영양 간식은 물론 밥반찬이나 명절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가위 선물로 제격이다.

(5,000원~25,000원 / 하이오백 063-636-2072)

남원김부각협동조합은 김부각과 다시마부각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알찬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좋은 찹쌀과 김으로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김부각에 다시마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다시마부각을 ‘반반 세트’로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일상 속 주전부리는 물론 명절 식탁의 훌륭한 반찬과 안주가 되어 줄 선물이다.

(24,000원~40,000원 / 남원김부각협동조합 063-625-7111)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100% 국내산 활미꾸리추어와 고랭지 시래기를 가마솥 전통 방식으로 푹 끓여낸 남원 추어탕을 선보인다. 원재료 본연의 깊은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정에서 손쉽게 대위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해 바쁜 명절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다.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자 따뜻한 고향의 정을 전하는 명절 보양식 선물로 손색이 없다.

(25,000원~35,000원 /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063-626-7727)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명절 간식

사회적기업 메밀꽃피는향아리는 도정 후 15일 이내의 남원 쌀만을 사용해 정갈한 떡 디저트를 빚어낸다. 쌀 본연의 구수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가벼운 다과용 떡부터 든든한 식사 대용 제품까지 알차게 구성했다.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어 먹기 좋은 뿐 아니라, 따뜻한 차와 곁들이는 품격 있는 디저트 선물로 손색이 없다.

(39,000원 / (유)메밀꽃피는향아리 063-625-9198)

사회적기업이자 마을기업인 웅치마을영농회는 수제 강정과 에너지바, 홍시 식혜 등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선보인다. 고소하고 바삭한 전통 강정에 남녀노소 즐기기에 좋은 에너지바와 달콤한 홍시 식혜를 더해 실속을 높였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절 주전부리로 안성맞춤이다.

(25,000원~40,000원 / 웅치마을영농회 063-635-2157)

마을기업 달오름마을은 세월의 온기를 담아 마을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긴 야콘 한과를 준비했다. 몸에 좋은 야콘으로 고아낸 조정을 입혀 자극적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함 뒤로 부드러운 고향의 정이 느껴져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추석 명절 식탁에 이야기 꽃을 더해줄 선물이다.

(25,000원 / 달오름마을 010-3675-2231)

마을기업 (주)비즈양조는 남원 금지평야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쌀을 주원료로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와 로컬 수제맥주를 선보인다. 순수 쌀 증류주 ‘화동원’ 세트부터 남원의 명소를 담은 ‘광한루 맥주 세트’까지 준비해 취향에 맞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남원의 맛과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낸 명절 주안상용은 물론 애주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제격이다.

(화동원 35,000원~60,000원 / 수제맥

주세트 20,000원 / 비즈술 40,000원 / 비즈술+광한루맥걸리 30,000원 / 비즈양조 010-8749-2686)

지리산과 남원의 자연을 담은 건강한 식재료

마을기업 지리산황치마을은 자연의 정직함을 담은 ‘누른당 바사삭 유기농 누룽지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청정한 지리산 자락의 기운을 머금은 유기농 쌀을 얇게 구워내 씹을수록 깊어지는 본연의 구수함을 자랑한다. 바쁜 일상 속 가벼운 주전부리나 따뜻한 누룽지 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명절 선물로 손색이 없다.

(25,000원~49,500원 /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 010-5424-9335)

사회적기업 지리산맑은물찬향골은 도토리묵과 우무면 밀키트를 비롯해 산수유묵, 검은깨묵, 도토리수제비 등 다양한 전통 묵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도토리, 우무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식재료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간편 조리 형태로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별미 상차림은 물론, 연휴 이후 일상적인 식단에서도 부담 없이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기에 좋다.

(17,000원~43,000원 / 지리산맑은물찬향골영농조합 063-636-6111)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은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들깨의 영양을 원물 그대로 착유한 프리미엄 생들기름과 갓 짠 햇들기름, 고소한 들깨가루 등을 선보인다. 원재료 본연의 신선함과 풍미를 살린 다채로운 라인업이 특징으로 간편하게 하루 영양을 챙기는 ‘생들기름 스틱형 오메가3 세트’부터 기름과 분말을 함께 담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까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필수 식재료에 건강과 정성을 더해,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다.

(22,000원~75,800원 / 지리산처럼영농조합 063-636-8788)

마을기업 흥부마을은 지리산 아영 고랭지에서 결실을 본 깨로 갓 짜낸 전통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한다. 참기름·들기름·생들기름으로 구성된 ‘흥부드림 세트’는 명절 음식은 물론 평소 집밥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실용성이 높다. 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인 만큼 가족이나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에게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기 좋은 선물이다.



(33,000원~40,000원 / 흥부마을영농조합 063-625-2932)

마을기업 하주발효마을은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기본 전통 장류를 한데 담은 ‘장 트리오 세트’를 선보인다. 깊은 감칠맛의 전통 된장과 칼칼한 고추장, 맑고 깊은 국간장으로 알차게 구성해 일상 속 다양한 요리에 두루 활용하기 좋다. 오랜 시간 발효와 숙성을 거친 깊은 정성이 깃들여 있어,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챙기는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명절 선물로 손색이 없다.

(42,000원 / 하주발효마을영농조합 010-2077-2054)

쓰임새를 더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활 선물

사회적기업 초록나무협동조합은 원목의 결을 살린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한



다. 여러 조각의 원목을 조합해 제작하는 엔드그레인 방식으로 내구성과 복원력을 높였으며, 나무 고유의 무늬가 살아 있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제품인 동시에 하나의 생활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래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생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5,000원~50,000원 / 초록나무협동조합 010-2657-3705)

예비사회적기업 푸르메가 사는 지구는 리사이클링 제품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보인다. 순면 오가니 타월과 자연 친화적인 소창수건 등 정갈하고 건강한 다화용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중한 이들에게 건강한 일상

과 푸른 지구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추석 선물이 되어준다.

(18,000원~40,000원 / 푸르메가 사는 지구 063-626-0703)

이번 명절에는 익숙한 선물 상자 넘어 남원의 푸른 자연과 생산자의 따뜻한 마음이 깃들인 온정을 건네보는 것도 뜻깊다. 식탁을 풍요롭게 채우는 먹거리부터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 소품까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생산자를 응원하고 지역의 가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추석 선물세트 주문 및 택배 접수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제품별 구성과 가격, 주문 및 배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참여기업별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추석맞이 秋夕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특판행사

행사기간 : 2026. 9. 14.(월) ~ 9. 24.(목)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